

I-Brand 열정*학기제 주차별 활동 보고서

주차	4주차	제출 일자	2023. 10. 03
팀명	CS 아카이브	학과	소프트웨어학과
프로젝트명	웹사이트 및 안드로이드 앱을 이용한 CS-아카이브 제작	학번	2022564004
		성명	김다빈
활동 내용	<div><h3>반응형 웹 사이트 학습</h3>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반응형 웹 사이트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: 기본적으로 웹사이트를 만들 때는 UX/UI에 초점을 뒀서 만들어야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데스크탑, 개인 PC, 휴대용 디바이스, 태블릿 등 사용자가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디바이스의 종류가 다양해짐에 따라 각 디바이스의 특성에 맞춰 자유자재로 화면을 적절하게 변화하여 보여주는 반응형 웹사이트가 등장하게 되었다. 이를 그대로 각 디바이스에 최적화된 화면을 보여주는 웹사이트를 말한다. 따라서 프로토타이핑 시 각 디바이스별로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지 미리 고려하여 디자인하는 것이 중요하다. 최근 생성된 대부분의 웹사이트는 이런 반응형 웹사이트로 구성되어 있다.<p>ex) https://music.apple.com/us/browse</p><div></div></div>	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UX/UI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UX(User Experience)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: 사용자가 제품 또는 서비스와 상호 작용하는 동안 느끼는 전반적인 경험- UI(User Interface)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: 사용자가 화면에서 보는 것, 터치하거나 클릭하는 버튼, 입력 폼, 메뉴 등과 같은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그래픽적 요소		

- 프로토타이핑(Prototyping)

: 제품이나 서비스의 디자인, 기능, 사용자 경험 등을 시각적으로 시연하거나 시험해보기 위해 제품 또는 서비스의 초기 버전 또는 모형을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.

- ※ 프로토타이핑 툴

: 디자이너와 개발자가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시각화하는 데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또는 도구

ex) Figma, Adobe XD, Sketch, InVision, Axure RP, Proto.io

프로토타이핑 툴 실습

- 피그마(Figma)

: 웹 디자이너들은 주로 Figma를 사용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, 웹사이트, 앱 등을 디자인하고 프로토타입을 제작하는데, Figma는 여러 사람이 실시간으로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웹 기반의 디자인 및 프로토타이핑 도구로, 클라우드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어디서든 접근이 가능하고, 실시간으로 다른 사용자와 함께 작업하면서 수정사항을 즉시 반영할 수 있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.

- 주요 기능

1. 실시간 협업

: 디자이너뿐 아니라 개발자나 기타 관계자들이 실시간 공유 및 협업 가능

2. 프로토타이핑

: 앱이나 웹사이트의 사용자 경험을 시뮬레이션 가능

3. 플러그인

: 디자인 자동화, 프로토타입 테스트 등 다양한 플러그인 지원

4. 컴포넌트

: 재사용할 수 있는 컴포넌트를 제작, 라이브러리에 저장해 효율적인 디자인 작업을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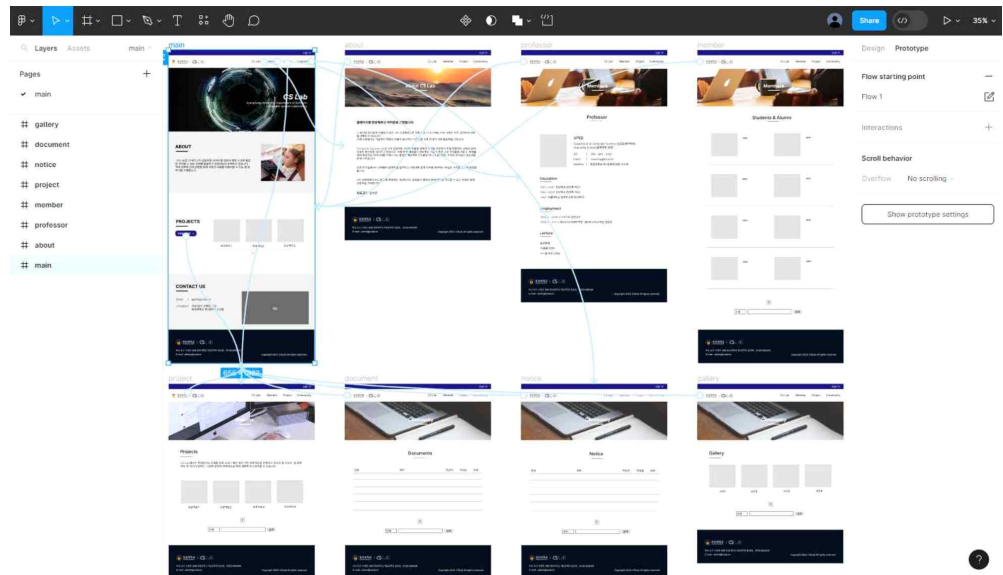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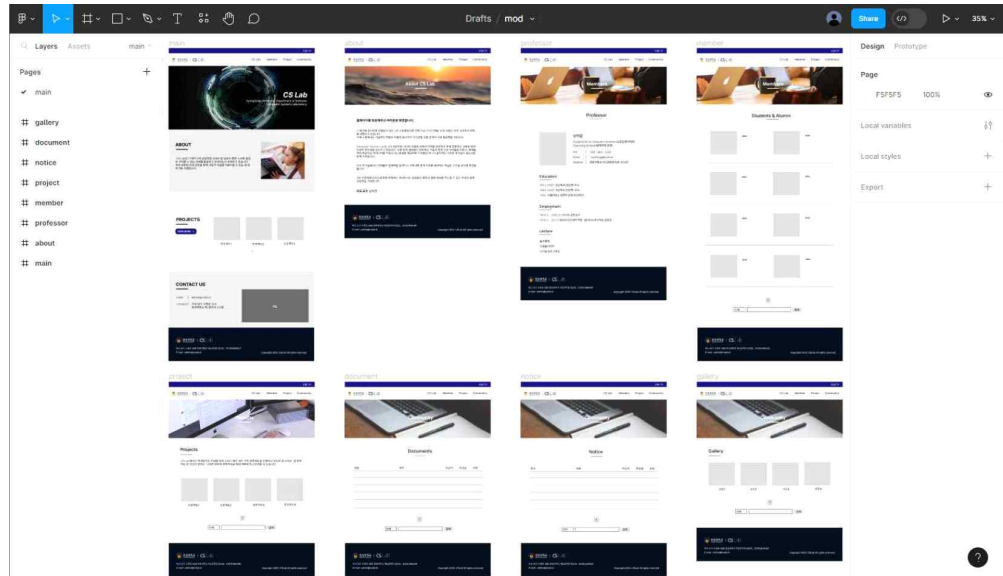
5. 버전 관리

: 디자인 파일의 버전을 관리하여 변경 내용을 추적하고 관리

※ 이외에도 Dev Mode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

- 프로토타입 제작 실습

- 반응형 디자인을 고려하여 제작할 홈페이지의 레이아웃을 Figma로 제작
- 프로토타이핑 기능을 이용하여 웹 페이지 동작을 시뮬레이션



느낀 점

웹사이트를 직접 만들기 전에 러프를 그려보는 것을 전문 용어로 프로토타이핑 (Prototyping)이라고 한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고, 프로토타이핑뿐만 아니라 웹사이트 동작 테스트 또한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기능이 통합된 툴들이 여러 개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. 처음에는 기능이 너무 많아보여서 어떻게 작업해야 할지 잘 몰랐는데, 하나하나 실습해보면서 Figma를 다루는 데 많이 익숙해진 것 같아서 뿌듯했다. 다음에 작업할 때는 더 빠르게 작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.